

서구인 눈으로 본 日권력의 실체

윌페런의 「일본의 권력구조」

바야흐로 세계경제를 움켜쥐고 미국과 서방 국가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 일본.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일본은 그러나 과연 국력과 부에 걸맞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일본의 국제사회 편입을 기다려온 서구제국은 오직 경제실익만을 철저히 쫓는 일본에 대해 당혹을 넘어서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떠한 나라인가. 그들은 무슨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설정을 한 정치·사회의 체제는 어떤 형태인가. 일본에 대한 이 새삼스러운 의문은 일본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새로운 시각의 저서 한권을 읽어봄으로써 일단 해명된다.

25년 이상의 일본생활에서 얻은 폭넓은 지식의 바탕으로 일본권력의 내부를 들여다본 네덜란드 태생 일본통 저널리스트 카렐 반 윌페런의 「일본의 권력구조」(The Enigma of Japanese Power, 시사영어사, 양찬규 역)가 그것. 저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본의 독특한 권력행사 방식과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일본권력의 사회적 체제를 낱알이 해부하고 있다.

일본은 1955년 이래 자민당의 일당지배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흔히 '집권당'으로 불리는 자민당의 총재인 수상은 어느 정부의 수상권력보다도 약하다. 정치가의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되지만 관료의 힘은 일본통치에 월등히 강하다. 일본 행정활동에 있어 관료들은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온갖 제한과 규제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관

료들 중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가는 역시 규명되지 않는다.

정치가·관료 외에 또하나의 중요한 권력집단으로 경제계가 있다. 대실업가가 정책결정까지 좌우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하지만 경제계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 비공식적으로 제어하는 관료의 통제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경우 기존 국내 시장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한다든가, 새로운 산업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행정지도하여 통합조정하는 것은 중앙관청이므로 체계는 관계 관료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집단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을 분담하는지 도식화하기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도 일본의 권력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권력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이긴 하나 어느곳에도 권력의 소재는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권력구조를 저자는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이 시스템은 계층구조의 하이여라키를 이루지만 정점이 없다. 즉 최고점이 없는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구조라는 것이다. 피라미드 시스템의 상층부에서 정치가는 예산을 쥔 관료의 덕을 보고, 산업계는 관료의 도움으로 해외시장을 파고들며, 산업계는 경쟁적으로 정치가에게 자금을 낸다. 이들간에 우두머리는 없다.

언론도 이 질서에 한몫한다. 일본의 매스컴, 신문의 일관된 '반체제적' 자세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격적으로 상층부의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결코 없다. 각 신문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상투적인 논쟁 외에 뉴스선



정은 어느 신문이나 서로 비슷하다. 신문이 문재삼는 '문제'는 사회의 관심사로 대변됨으로써 일본인은 그 화제 덕분에 사회와의 일체감을 갖기도 한다.

일본의 교육 역시 은밀하게 이 '시스템'의 유지에 이로운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오고 있다. 이론적으로 출세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학교제도를 통해 일본의 관리자계급 출신 가정은 고도로 균질화된다. 교육을 통해 일본기업의 구성원은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므로 동창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일본의 관·재계의 인맥은 정교한 망상조각이 되어 시스템의 신경계통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시스템은 '코네'(Connection 일본약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의해 탄탄하게 유지된다. 학연·혈연의 인맥이 거미줄같이 퍼

져 있으며 혼인을 통해 엘리트간의 비공식적 연대를 구축한다. 일본정치가의 힘은 돈·혼인 관계 정치수완으로 만들어진 광범하고 복잡한 인맥에 의존한다. 여기에 싹트는 구조적인 부패는 이른바 돈으로 인맥을 형성하는 '금권 정치'이다.

정점 없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는 중산층의 사고방식을 관리 통제하는 또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지된다. 시스템 인적구성의 핵심인 샐러리맨은 입사초기부터 기업으로부터 사고방식의 훈련을 계속 받게 된다. 이들의 생활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 제일주의, 충성심은 기존의 사회·정치 질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이와함께 시스템의 강력한 결속력으로서 '일본인다움'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작용한다. 일본인의 독특한 동질성이란 서로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립을 두려워 하는 '和'(harmony)의 전통에 의해 형성된다. '和'의 개념은 국체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하며 일본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원리임을 기회마다 강조한다. '和'를 이토록 중시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스템에 있어 '和'가 결여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스템의 모순을 일본인은 '和'의 개념으로 감싼다.

그러나 일본의 '시스템'은 영원한가. 일본은 시스템 자체의 존속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이 '일본의 존속'과 잘못 동일시되고 있다. 시스템의 성격은 정치적 관계에 의해 정해지므로 역전가능하다. 시스템이 변모하기 위해선 혁명과도 같은 권력의 재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 김지원 기자

도서출판 대림기획 TEL : 268-4902 FAX : 277-6946

찢어진
우산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의용
칼럼집

“젖어 있는 마음은 언제나 우산을 받쳐 든다.”

우산을 퍼들면,
우산 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방울에
우리의 마음도 젖어든다.
메마른 먼지로 단단히 굳어진
우리네의 삶, 생각, 마음에
이슬비라도 뿌려지고 적셔졌으면...
신국판 / 150쪽 / 값 3,300원

